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2015년 인도·파키스탄
프로젝트 사례 연구

여성의 문해교육과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5년 인도·파키스탄
프로젝트 사례 연구

여성의 문해교육과 변화

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교육부의 국고보조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2015년 인도·파키스탄
프로젝트 사례 연구

여성의 문해교육과 변화

목 차

06 - 09

서문

10 - 45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
기능문해교육을 통한 여성의 변화 추동

46 - 74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
문해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여성의 권한강화

글로벌 교육 의제와 문해

국제사회는 2015년 새로운 개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전문기구로서 SDGs의 네번째 목표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의제인 모든 이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 인구는 여전히 7억7천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는 여성이라는 유네스코의 통계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 아직도 요원한 목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성인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체 교육 예산의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0.5% 미만이라는 또 다른 통계¹는 성인문해 달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와 참여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¹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09. 133-134쪽 참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의 성인문해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SDG 4 번과 교육2030 의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시아 최빈국과 저소득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관점의 비형식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문해능력을 향상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외부의 개입이 아닌 자국 내의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이 각국의 문해교육 및 평생학습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 5개국(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에서 문해교육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두 개의 브릿지 프로젝트²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인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브릿지 인도·파키스탄 프로젝트:
문해교육을 통한 여성의 권한강화**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 기능문해교육을 통한 여성의 변화 추동’사업은 여성을 단순한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합니다. 여성을 변화의 주체(change agents)로 인식하고 여성의 권한강화(empowerment)와 사회 참여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사회·인지 영역의 변화 지표들을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출신의 여성이 교육을 이수하여 다시 강사가 되는 마을 내 문해강사 양성 구조도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 문해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소외 지역 여성의 권한강화’사업은 문해교육을 통해 향상된 여성들의 문해능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한 프로젝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경제활동이 본인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연구 자료에 기반하여 금융문해교육(financial literacy) 참여와 저축 증진을 조건으로 여성학습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조건부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행 원년인 2015년에는 참가 여성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해후교육(post literacy) 활동들도 문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적용해볼만한 실용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연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현지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인도 사바기교육센터의 Ashok Kumar Singh 센터장님과 파키스탄 분야드문해협의회의 Shaheen Attiq-ur-Rahman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비형식 성인문해교육 분야 전문가, 학자, 문해기관·단체 관계자, 활동가, 그리고 문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 동 석



महिलाओं की व्यक्तिगत सुरक्षा के लिए सीखें एवं अपनायें उचित व्यवहार

8	97	95	94	93	92	91
84	85	86	87	88	89	90
76	77	75	74	73	72	71
60	59	64	65	66	67	68
50	58	56	55	54	52	51
41	43	45	47	48	49	50
39	38	37	36	35	34	33
21	22	23	25	26	27	29
20	19	18	15	14	13	30
91	2	3	6	7	8	11

महिलाओं को शिक्षित करने में हिस्सा ले रही भारतीय महिलाएं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



기능문해교육을 통한 여성의 변화 추동

Chains of Change Agents through Functional Literacy

- 학습언어 힌디어
- 참가자 학습자 521명, 문해교육 강사 15명
- 사업지역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바라나시 지역
- 사업기간 2015년 4월 ~ 2015년 12월

사바기교육센터
Sahbhagi Shikshan Kendra



사바기교육센터는 인도 비영리단체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우타르 프라데시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권리 찾기와 양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1990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러 크나우에 설립되었다. 사바기교육센터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 개요

본 프로젝트는 기초문해 및 기능문해교육을 통해 인도 바라나시의 출라푸르, 하라후아 지역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여성 학습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5명의 같은 지역 출신 문해강사를 선발하여 양성한 점이 특징이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521명의 여성들은 기초문해력이 향상되었고 생활 기술을 습득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본 프로젝트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인도 정부의 국가 문해 프로그램인 ‘인도 문해 미션(Saakshar Bharat Mission)’에 지원하여 문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얻기도 했다.

사업 배경

바라나시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빈곤율이 높다. 특히 바라나시 내 출라푸르(인구 204,348명) 및 하라후아 구역(인구 218,333명) 내 절반 이상의 인구가 무슬림 또는 불가촉천민이다. 이들은 주로 직조나 봉제와 같은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전통 산업의 쇠퇴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중간 도매상의 착취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가정의 여아 92%가 초등학교 5학년, 중등학교 8학년 이후에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중퇴율이 매우 높은데, 조혼 관습, 여아 교육의 부재와 여아 교육에 투자하기 어려운 가계 상황 등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초등교육의 질이 낮아 학교를 그만 두고 가족을 부양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지역사회 내부에 깊이 존재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바기교육센터는 해당 지역의 여아 교육, 여성의 역량 강화, 가내수공업 위주의 초보적 경제활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에 비문해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업의 목적

출라푸르 및 하라후아 구역 내 무슬림 · 불가촉천민 여성들의 권한강화

-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의 기초문해력 향상
-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 양성평등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



아이를 안고 문해수업에 참가한 여성

문해 달성을 위한 접근 방안

1. 기능문해센터 운영

문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능문해센터 총 15개소(하라후아 3개소, 출라푸르 12개소)를 운영했다. 기능문해센터는 무슬림과 불가촉천민들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마을 여성들이 불편함없이 센터에 찾아올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주 6회 교육을 실시했다.

2. 여성강사 모집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강사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강사 중 4명을 선발했으며 나머지 강사 11명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별도 선발했다.

1단계로 기능문해센터에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지원자 20명을 선발했다. 2단계로는 각 마을에서 표적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을 진행하여 1차 선발자와 보호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사의 역할에 대해 안내했다. 3단계에서는 4명의 면접관(남성 2명, 여성 2명)이 참석하여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주제는 여성 권한강화, 여아 교육, 영양, 무슬림과 불가촉천민들이 겪는 어려움, 마을 일자리 문제 등으로 구성했다. 단계별로 각 지원자에게 부여한 등급에 의거하여 11명의 신규 강사를 최종 선발하였다.

여성강사 역량강화

강사는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들 중에서 선발하여 자신들의 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배경에서 살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변화의 주체(change agents)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강사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3.1. 기능문해 지도를 위한 강사 연수

선발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사바기교육센터 러크나우 본부에서 5일간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성인문해 및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연수 내용은 기초문해 및 생활기술과 같은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수의 목표:

- 기초문해 및 기능문해와 관련한 강사의 교수·지도 능력 개발
- 농촌 지역 성인여성의 문해 능력 개발 측면에서 평생학습 교수·지도 방안의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기초문해 및 기능문해를 위한 강사의 참여식 교수·지도 능력 개발
- 농촌 여성들의 문해 능력 개발 관련 주요 이슈 및 과제에 대한 인식 증진

주요 연수 주제:

- 성인문해의 원칙
- 기초문해교육 교수·지도 방안
- 비문해 여성 교육을 위한 교구재: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활용 방안
- 생활기술교육 교수 방안
- 참여식 교수법: 역할놀이, 소그룹 토의 및 발표, 사례 분석 등

3.2. 강사 재교육

1차 문해 과정 종료 후, 2015년 11월에 강사 재교육을 3일간 실시했다. 강사들은 가족들의 압력으로 일부 여성학습자들이 문해수업에 나오지 못하는 등 학습자 모집과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문해 과정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재교육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동원과 신뢰형성 방안에 대해 안내했으며, 강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성평등과 정부 제도에 관한 주제도 상세히 다루었다.

3.3. 현장학습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마힐라 사마크야 우타르프라데시’에서 현장학습을 주관하였다. ‘마힐라 사마크야’는 인도 정부가 담당하는 성인문해교육 NGO다. 현장학습은 바라나시에서 150km 떨어진 마힐라 사마크야 알라하바드에서 진행되었다.

현장학습은 주최측 및 참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였다. 강사들은 해당 기관의 여러 교구와 교수법을 접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의 성공적인 전략과 장애물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공부를 하며 마을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문해자들을 만났다. 또한 강사들은 현장단체가 운영하는 ‘비문해여아캠프’도 방문했다.

학습자 모집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들 중에서 기능문해교육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사바기교육센터 직원과 대학생 인턴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및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비문해 여성 명단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문해교육 참가의지와 흥미를 알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진행했으며, 심사 후 문해교육 과정에 가장 열정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1기 교육자 명단을 확정했다. 사바기교육센터와 대학생 인턴들은 28개 마을 여성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능문해센터 설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약 15-20명의 여성이 각 센터의 문해수업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문해수업 참여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세션과 가정방문 또한 진행했다. 이 결과 총 561명의 학습자를 모집 할 수 있었다.

5.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 개발

다음 교수학습 자료와 교재를 개발·출판하여 문해교육에 활용했다.

5.1. 기초문해 강사용 매뉴얼

외부기관에서 기초문해 모듈을 포함한 강사용 매뉴얼을 지원 받았다. 모듈에는 이야기, 사례연구, 실제 상황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기초문해 지도를 위한 도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음과 모음, 단어와 문장 형성, 숫자와 표, 독서 습관, 이름 및 주소 쓰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5.2. 기능문해 교육모듈

생활기술교육을 포함한 45일 과정의 기능문해 교육모듈을 개정·완성했다.

- 기능문해 모듈이 다루는 주제:
- 보호자와 그의 역할
- 일상 생활 계획
- 개인 보건 및 위생
- 서비스 제공 업체

- 양성평등
- 여성의 법적 권리
- 공동체의 중요성
- 사회통합
- 여성 및 아동 발달 관련 정부 복지제도
- 통신수단과 사용 방법
- 금융 기관
- 정부 행정 체계 및 기능 이해
- 지역사회 생활 및 갈등의 이해 등

해당 모듈은 성인문해 및 기능문해 분야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개발했다. 모든 세션은 주 단위에서 구성·개발되었으며 최종 모듈 확정 전에는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모듈을 사용했다. 또한 모듈과 함께 주제별 이슈를 다루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인쇄했다.



교보재를 사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하는 여성들

5.3. 기초문해 학습교재

학습자들이 이용한 기초문해 학습교재는 외부 출판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했다. 교재는 모든 기초문해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포함하여 힌디어 알파벳과 짧은 문장을 쉽게 배우도록 제작했다.

5.4. 교보재

포스터, 플립북, 힌디어 알파벳 블록, 사진 및 영상, 주제 발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보재를 개발하여 해당 모듈과 함께 사용했다.

교보재 종류:

- 가방
- 다양한 생활기술교육 관련 포스터
- 힌디어 알파벳 및 숫자 블록
- 구급 상자
- 교수법 가이드
- 교육·여성관련 법 등에 관한 책
- 이야기책
- 생활기술 관련 모듈
- 기초문해 관련 모듈 등



교보재



기능문해센터로 향하는 여성들

사업 활동

1.

기초문해 과정

사업지역 내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 여성의 기초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했으며 해당지역 언어인 힌디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숫자 블럭, 힌디어 문자 블럭, 그림으로 된 표, 일상 생활과 연관된 도구 등을 교구로 사용하여 문자 읽기, 자음과 모음, 두 글자로 구성된 단어, 단순한 단어 적기, 1부터 50까지의 숫자읽기 등과 같은 문해의 기초부터 실시했다.



기능문해수업에 참여하는 여성들

2. 기능문해 과정

여성들의 생활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문해 과정을 진행했다. 주로 조별활동, 소그룹 토의, 역할놀이, 발표, 영상 및 다큐멘터리 시청과 같은 참여식 교수법을 통해 진행하였고 가계 관리, 개인 건강과 위생, 저축 습관,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정부복지제도, 젠더, 여성의 법적권리,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3. 정부 및 공공기관 현장학습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기능문해센터에서 총 10개 그룹을 선발하여 경찰서, 지방정부, 지역 자원 센터, 보건소, 복지 부서, 문해 관련 정부기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공무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진행했다. 이 시간을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체계에 대하여 학습했다.



정부기관 현장학습

4.

문해증진 캠페인 및 애드보커시(세계 문해의 날 기념 캠페인)

무슬림 및 불가촉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2015년 9월 11일, 세계 문해의 날 기념행사를 출라푸르 소재 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학습자 및 지역 주민 여성 200명이 참석했으며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의 문해증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본 행사에 여성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성인문해와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다음은 세계 문해의 날 기념 주간에 여성 청소년들이 진행한 활동이다.

4.1. 서명 캠페인, '지문 대신 이름을!'

여성 청소년들이 현수막을 들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위에 지문 대신 이름을 적도록 하자라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문 대신 서명을 하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성인여성 약 1,000명의 이름을 현수막에 자필로 받는 데 성공했다.

4.2. 대중 집회

여성 청소년들과 문해 학습자들이 한데 모여 출라푸르 중학교에서부터 지역개발사무소까지 행진하며 문해의 중요성에 대해 노래하며 구호를 외쳤다.

4.3. 강사 연극

강사들은 세계 문해의 날 기념 행사에서 비문해가 농촌 성인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연극을 공연했다. 강사들의 공연은 해당 주제를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성인문해 및 평생학습 경험 공유 워크숍

2015년 12월 14일, 바라나시 시티인 호텔(Hotel City Inn Varanasi)에서 문해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성인문해 및 평생학습 경험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인문해 관련 정부부처와 대학(Banaras Hindu University, Mahatma Gandhi Kashi Vidhyapeeth Harishchandra P.G. College), 관련 NGO들을 초청했다. 워크숍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전략 및 효과에 대해 공유했으며, 사바기교육센터의 사업 체계, 성과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했다.

- 수업 기간의 연장
- 바라나시 내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 기초문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자체 매뉴얼 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1.

정기 평가회의

매주 토요일마다 사업팀과 강사들이 만나 사업의 애로사항 및 고민,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업 코디네이터들과도 매월 1회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매월 회의내용 및 후속조치, 주요 전략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

사업장 방문

사바기교육센터장과 담당자가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해교실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자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이후에도 프로젝트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3.

월간 보고서 작성

사업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완료된 업무, 프로젝트 추진 전략, 지역사회 동향, 해결과제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모두 기록했다.

4.

프로젝트 참여 전후 학습자 평가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학습성과를 평가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문해 수업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했다.

5.

프로젝트 평가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본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 까지 평가하여 사바기교육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요인 분석

기능문해 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목했다.

- 사업 대상에 대한 영향 수준 평가
- 성인 여성에 대한 기능문해의 효과 평가
- 문해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태도변화 평가
-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관찰되는 행동변화 평가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 지표에 대해 이해 하기 위해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고려했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

사업 성과요인

사업 목적	영역	수준	지표(양적/질적)
기초문해력 향상		기초문해력 수준	· 이름을 쓸 수 있다 ·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다 · 단어를 인식하고 읽을 수 있다 · 숫자를 인식하고 읽을 수 있다
		고급문해력 수준	· 짧은 문장을 쓸 수 있다 · 신문과 교과서를 읽을 수 있다
사회참여 촉진 및 권한강화	사회적 영역	개인 수준	·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 개인 저축을 시작했다
		가족 수준	· 학교에 가지 않는 딸을 학교에 보냈다 · 학교 자치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 자녀의 학교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사회 수준	· 정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건강, 영양, 교육 유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역 기관 및 공무원과 소통이 가능하다 · 병원, 학교 등에 혼자서 방문한다
		지역사회 수준	·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한다 · 마을 자치회의에 참여한다 · (개인적,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부여 받았다 · 의사소통 능력 및 자신감이 증진되었음을 느낀다 ·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존중해준다
인지적 영역	개인 수준	·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평등을 위해 일상에서 성차별에 맞선다 ·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 등에 대해 알게되었다 ·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 수준	· 딸의 학교 등록과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주변 환경과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지역자치 모임(Gram Panshayat)에 더욱 자주 참석한다 · 저축을 고려하고 있다
양성평등 환경 조성		지역사회 수준	· 마을교육위원회 구성원들과 마을 지도자들이 여성의 문해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마을 리더들과 대표들이 문해가 주는 이점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 마을교육위원회 구성원들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공공 수준	· 학습자들을 정부 기관 등에서 문해자로 인증했다 · 기타 공공 기관에서 사업을 지원받았다

사업 성과 평가 방법

프로젝트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양적정보 수집을 위하여 총 여성학습자 중 20%인 120명을 선발했다. 이는 15개 기능문해센터 출석부에 등록된 여성을 ‘계통적 무작위 표본추출법(systemic random sampling)’을 통해 각 센터별로 8명씩 선택한 결과이다. 해당 여성들이 문해자가 되었는지, 어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해수준 평가도구 또한 개발했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들을 A, B, C 수준으로 분류했으며 이 외에도 프로젝트 개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도 진행했다.

질적정보는 참가 여성(15~20명)과의 표적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s, FGDs) 4회, 마을교육위원회(Village Education Committee) 및 지역자치공동체(Gram Panchayat) 구성원과의 직접 면담 121회를 통해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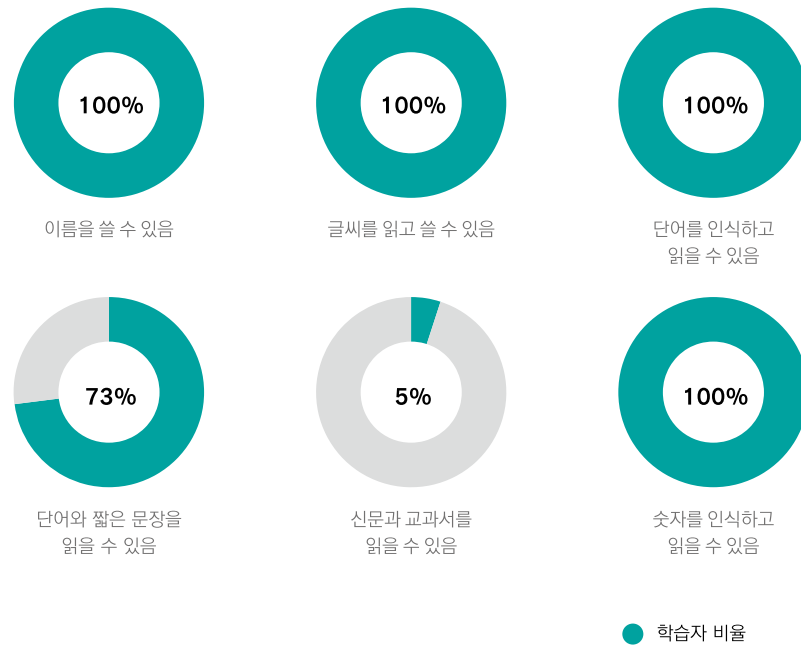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사업 성과 평가 결과

1. 기초문해력 향상

사업 실시 후, 여성들의 기초문해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업 후반에 수집한 양적 자료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증명한다.

- 100%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
- 100%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다.
- 100%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단어를 인식하고 읽을 수 있다.
- 73%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 5%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신문과 교과서를 읽을 수 있다.
- 100%의 표본선택된 여성들이 숫자를 알아보고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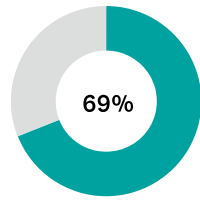
거의 100%의 학습자가 이름 쓰기, 글자와 숫자 읽고 쓰기, 단어와 짧은 문장 읽기 같은 기초문해력 및 셈하기 능력을 얻었다. 그러나 신문 읽기와 같은 고급능력은 5%의 학습자들만 갖추게 되었다.

2. 기능문해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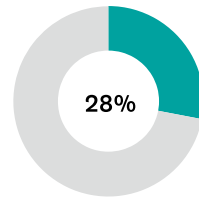
기능문해력 향상에 있어서도 주목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들은 건강과 가정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기능문해센터 참가 여성들과의 논의 결과, 여성들은 손씻기 습관, 균형잡힌 식습관, 예방접종, 모유수유, 월경 위생과 같은 건강 및 위생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전보다 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권리인식, 저축습관 등과 같은 권한강화 관련 지표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으며, 여성들은 재정 및 가계예산 설계에 더 익숙해졌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약 42%의 여성들이 교육 참가 이후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이 저축 또는 연대를 목적으로 자치그룹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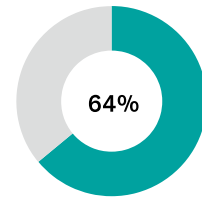
- 69%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학교에 다니지 않던 딸을 학교에 등록했다.
- 28%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정부 복지정책 및 권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 64%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은행계좌를 개설했다.
- 42%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개인 저축을 시작했다.
- 10%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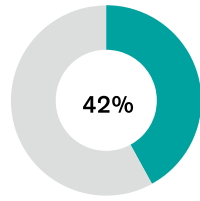
학교에 다니지 않던 딸을 학교에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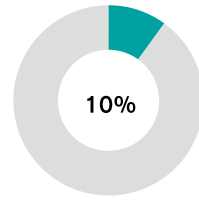
정부 복지정책 및 권리에 대해 인식함



은행계좌를 개설



개인 저축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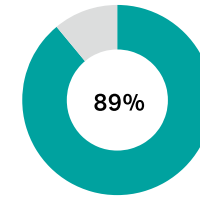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 학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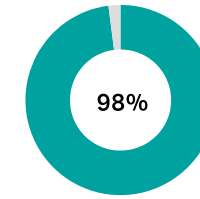
3. 태도와 행동의 변화

상기 효과 이외에도 여성들의 자립심이 향상되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표적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s, FGDs)에 참가한 여성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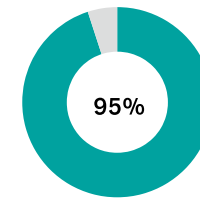
- 약 89%의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 약 98%의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은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고 소통 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약 95%의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은 교육 후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성차별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고 답했다.
- 약 84%의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은 아동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동의 권리,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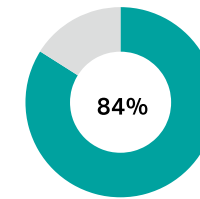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 수행



의사소통 기술 향상 및 자신감 향상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성차별에 대한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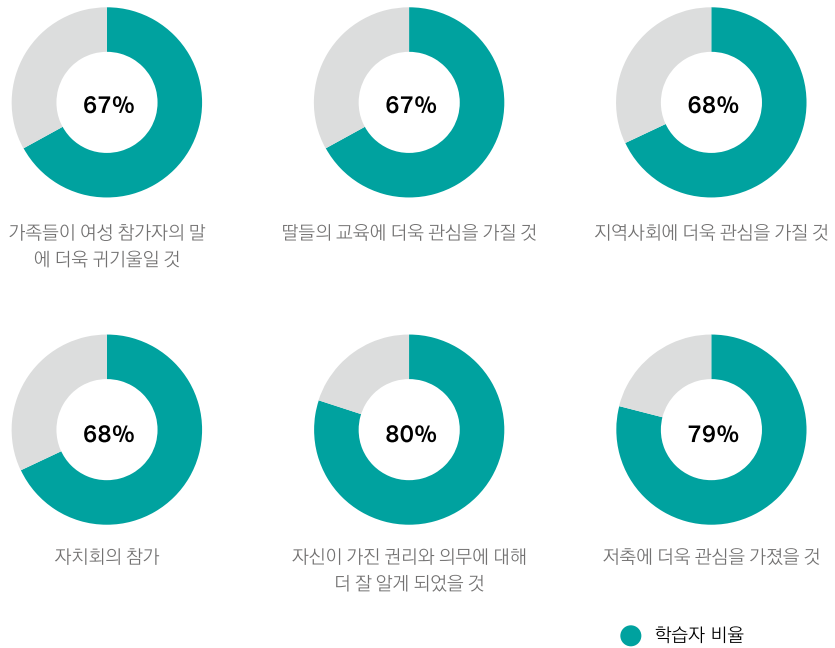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 학습자 비율

표적집단토의(FGDs)에 참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8%가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들은 문해수업에 참가한 다른 여성들도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누리고 사회참여 능력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 중 약 67%는 교육 참가자들의 가족이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 중 약 67%는 교육 참가자들이 딸들의 학교 등록 및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 중 약 68%는 교육 참가자들이 자신의 환경 및 마을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지역자치공동체(Gram Panchayat) 회의에 더욱 자주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 중 약 80%는 교육 참가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표적집단토의 참가 여성 중 약 79%는 교육 참가자들이 저축에 더욱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표적집단토의에 참가한 여성들 중 약 82%는 위에서 제시한 변화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을 본인의 생활에서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4.

지역사회 효과

4.1. 마을

17명의 문해수업 참가 여성들이 각종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마을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을교육위원회 위원들, 마을지도자 및 마을대표의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마을교육위원회의 위원들 중 교육 참가자들은 수료 후 얻은 문해, 생활기술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을교육위원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들은(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 학교에 더 자주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출석률, 학생들의 수업내용과 같은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 지도자 및 마을 대표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프로젝트가 지속되어 더 많은 마을 여성들이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길 희망했다.

4.2. 정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정부의 성인문해국와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했으며 관련 지원과 자문을 받았다. 특히 ‘성인문해 및 평생교육 경험 공유 워크숍’에서는 참가한 성인문해국 관계자는 학습자들을 인도의 국가 문해 프로그램인 ‘인도 문해 미션(Saakshar Bharat Mission)’에 등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 문해 미션’은 인도의 문해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점 캠페인으로 학습자들이 정부 주관의 문해시험을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문해자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정부에서 문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해강사 소날리 씨

“나와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어요.”

참가자 사례 1

문해강사 소날리 씨 이야기, 19세

대학 1학년인 19세 소날리 씨는 여성의 교육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소날리 씨의 가정에서는 소날리 씨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소날리 씨의 오빠는 소날리 씨가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날리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업에 계속 매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바기교육센터가 실시한 성인문해교육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본래 소날리 씨는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오빠는 소날리 씨가 예술을 공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직도 소날리 씨는 이 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결혼한 언니는 소날리 씨가 12학년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돈을 보냈습니다. 소날리 씨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이러한 억압에 맞섰습니다. 공부와 일이야말로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강조하며 삼촌을 설득했고, 그 결과 삼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날리는 오빠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때를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 후 소날리 씨는 성인문해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거쳐 문해강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엔 소날리 씨를 방해하던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첫 강사 월급을 받은 소날리 씨는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진행했던 날, 가르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소날리 씨

는 그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름을 읽고 쓰는 방법만 알려줬습니다. 그런 소날리 씨가 어엿한 문해강사로 거듭나게 된 것은 러크나우에서 진행된 문해강사 연수에 참석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은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었으며 덕분에 많은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해강사 활동 기간동안 소날리 씨는 학습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여성은 소날리 씨의 활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소날리 씨가 응급 상황에 놓인 그 여성의 딸을 치료해주고 난 후부터 소날리 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며 기능문해센터에 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날리 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이 여성의 남편을 찾아가 설득했고, 그 다음날부터 여성은 기능문해센터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소날리 씨는 이렇게 자신이 마을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행복감을 느낍니다. 소날리 씨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참가자 사례 2

학습자 쉼라 씨 이야기, 35세

출라푸르의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35세의 여성 쉼라 씨. 양육 문제와 집안의 가부장적 분위기로 인해 쉼라 씨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를 수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쉼라 씨의 이야기는 결단력 있는 여성에게 약간의 지원만 할 수 있다면, 가부장적 억압과 폭력에 맞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쉼라 씨의 마을에 기능문해센터가 개소했을 때, 문해강사 아느쭘 씨로부터 수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은 쉼라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쉼라 씨가 기능문해센터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쉼라 씨의 남편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 왔는데 이제 와서 수업에 참가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파는 남편에게도 문해 기능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느쭘 씨의 격려와 지지로 쉼라 씨는 계속 기능문해센터에 출석했습니다. 그 결과 쉼라 씨는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를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쉼라 씨가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글을 몰라 예금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절절매던 남편은 쉼라 씨

가 예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였고, 공부를 하더라도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설라 씨의 남편도 문해 기능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기능문해센터에 가거나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내를 못살게 굴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제 설라 씨는 자신있게 시내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해수업에서 예산 관리에 대해 배운 지금은 가게관리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문해교육에 참가한 후의 변화에 대해 설라 씨는, “이제 누구에게든 말을 걸 수 있고,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요즘 설라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동생에게도 기능문해센터에 다닐 것을 권유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해수업 참가자 설라 씨



일상생활에서 읽기, 쓰기를 연습하고 있는 설라 씨

“폭력으로 배움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문화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파키스탄 여성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



문해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여성의 권한강화

Empowering Women through Basic Literacy and Life Skills

- 학습언어 우르두어, 영어
- 참가자 학습자 589명, 문해교육 강사 24명, 직업훈련 강사 24명
- 사업지역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지역 마나완, 하피자바드지역 람케차타(Ramke Chattha)
- 사업기간 2015년4월 ~ 2015년 12월

분야드문해협의회
Bunyad Literacy Community Council



분야드문해협의회는 파키스탄 펀자브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낙후지역 아동 및 여성과 같은 소외된 이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비형식 문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분야드문해협의회는 자체적인 문해교육 활동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1998년 코메니우스 메달(The Comenius Medal)을, 2002년 세종문해상(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분야드문해협의회 부 대표인 샤힌 아티쿨 라흐만(Shaheen Attiq-ur-Rahman)은 파키스탄 교육 분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파키스탄 대통령상인 아지즈 이 파지라트(Aziz e Fazilat)상을 받았다.

2012년부터는 여성들의 권한강화를 통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여성 문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사업 개요

본 프로젝트는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한 파키스탄 라호르와 하피자바드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 및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한 사업이다. 특히 조건부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은행계좌를 발급받게 했으며 각각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해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학습이수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등의 문해후활동(Post literacy)도 실시했다.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한 589명의 마을여성들은 기초문해력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또한 여성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업 배경

2008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68%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에 대한 양성평등지수(Gender Parity Index against Net Enrolment Rate)는 0.76으로 여아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남아들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특히 보수적인 시골마을에서 더 두드러진다. 2009년 발행된 파키스탄 교육정책 보고서는 전체 학생의 약 72%만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나머지 28%는 5학년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둘 정도로 높은 중퇴율을 보여준다.

심각한 도농간 격차, 먼 통학거리, 10세 이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부족, 소외지역 여성의 낮은 문해율, 보수적인 마을의 성향(카스트 제도, 부족제, 봉건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과 같은 요인들은 파키스탄 교육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여성 문해율은 42%(유네스코, 2013)에 불과하다. 전체 문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성별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골 지역의 경우는 여성의 교육이 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의 목적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및 하피자바드 지역 여성들의 권한강화

- 문해교육을 통한 해당 지역 여성들의 문해력 향상
- 금융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문해수업시간에 칠판에 쓰기연습을 하는 여성

문해 달성을 위한 접근 방안

1. 마을위원회 설립

마을의 주요 인사들을 주축으로 사업 활동을 지지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총 24개의 마을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사업팀의 문해교육 참가자 모집, 강사 모집,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 유지 활동을 지원했다.

2. 학습자 모집

마을위원회는 비문해여성들이 지역학습센터에 위치한 성인문해 및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참여했다. 학습자 모집 계획부터 실행까지 마을위원회가 관여했으며,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했다. 그 결과 총 607명의 비문해 여성이 24개의 학습센터에 학습자로 등록했으며, 그 중 18명은 가족의 반대,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 이사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3. 강사 모집 및 연수

마을위원회의 협조로 지역 출신 강사 모집을 진행했다. 모집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최종 24명의 문해교육 강사와 24명의 직업훈련 강사를 선발했다. 선발된 강사들은 분야드 현장사무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한 오리엔테이션과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24명의 문해교육 강사들은 학습 계획, 발음 교수법, 수업 관리,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학습평가 등의 기본적인 교수법에 대해 연수받

고, 지역사회 동원, 문해교육과 비형식교육에 필요한 ICT 사용법도 경험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입한 금융문해교육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산·저축·투자·대출 등 금융기관 및 서비스 이용방법과 소비자 권리와 의무 관련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수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생계를 위해 봉제업에 종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24명의 직업훈련 강사들을 대상으로 바느질, 자수 등의 재봉기술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연수과정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정부 산하 기관(Sanatzar)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사업 활동

1.

기초·기능문해 과정

학습자의 기초문해력 향상을 위해 기초문해 과정을 운영하여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교육했다. 기능문해 과정에서는 보건, 개인위생, 가정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갈등해결 방안 등의 생활기술 요소를 추가했다. 문해교육은 총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문해후(Post Literacy) 활동

문해교육 수료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해학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동도서관 운영 활동을 실시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 방법을 배우는 여성(ICT 활용 프로그램)

2.1.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프로그램

기능문해력과 문해교육 이후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휴대폰을 소유하거나 가족 중 휴대폰이 있는 학습자들이 ICT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도록 지원했으며,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해후교육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학습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습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문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2.2. 릿샤 이동도서관 운영

독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릿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문해수업 수료자 뿐만 아닌 공립·사립학교 학생들, 주민 등 마을의 모든 사람이 책과 관련 교구재를 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동도서관 안에는 전자교육(e-learning)을 위해 노트북,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젝터 스크린 등 ICT 활용 교보재를 인쇄된 읽기자료와 함께 구비해 두었다.



릿샤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줄 서있는 지역마을 학생들



릿샤 이동도서관

3.

소득증대 활동

3.1. 조건부현금이전(CCT) 프로그램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CCT 참가자들이 지역학습센터 문해수업에 출석하도록 동기 부여
- 참가자 자녀들의 학교 취학을 및 학교 재등록률 증가
- 금융기관(은행) 이용 유도 및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한 장기적 가계 수입 증대
- 지원된 현금의 자체적인 운영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권한 증진

총 607명의 학습자 가정을 대상으로 빈곤점수 카드(Poverty Scorecard) 조사를 실시하고 가계별 빈곤수준을 파악하여 가장 취약한 107개 가정을 현금이전 대상자로 결정했다. 해당 가정의 여성 학습자들에게는 문해수업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달 현금 500 파키스탄루피(한화 약 5,300원)를 지원했으며 현금 200 파키스탄루피를 저축하는 여성에게는 익월에 현금 100 파키스탄루피를 추가지급했다.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금융문해교육 내용 및 관련 활동을 포함했다.

- 금융 시스템 및 서비스의 이해
- 가계부 및 예산 작성, 저축관리
- 가정 내 소득 및 사업자금 관리
- 개인 투자 방안(교육, 보건, 영양, 소득창출기술 등)
- 현금을 이전할 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

3.2. 직업훈련 과정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봉제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기술을 강화하는 고급 재봉기술교육을 문해교육 학습자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습자들은 간단한 재봉기술은 가지고 있었으나, 보다 섬세한 재단기술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강사들에게 파키스탄 편자브주 정부 산하 기관 (Sanatzar)를 통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더 정교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업훈련 교육시간에 수놓기 연습을 하고 있는 여성



새로운 재봉기술을 배우는 여성



교과서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여성

평가 및 모니터링

분야드문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프로젝트 보고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 방문, 월간보고서 분석,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진행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도 지방정부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가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학습자들의 문해능력 확인
- 연수워크숍 참가 강사들의 피드백 점검
- 사업 관련 물품 재고 확인
-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관련 다음 사항 점검 및 조치
 -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빈곤점수 카드 점검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문해수업 출석률 점검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분야드문해협회의의 정기 모니터링 이행상황
 - 프로그램 참가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등록 및 학업유지 상황 (후속 방문)

사업 성과 평가 방법

프로젝트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양적정보 수집을 위해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통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stakeholder survey)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 문해교육 학습자 중 30%(186명)
-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참가자 중 50%(54명)
- 사업 대상 지역 공립학교 교사 11명

또한 데스크 리뷰를 위해 사업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수집했으며, 문해강사와 학습자 관리요원들(mobilizers)이 작성한 월간보고서와 평가자료도 검토자료에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정보를 수집했다.

사업 성과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는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부모, 남편,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후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학습자의 시어머니와 남편 또한 여성의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문해강사들은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금융지식을 단순히 본인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전파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마을위원회는 마을에 필요한 응급처치, 가축관리, 출생신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하고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예컨데 일부 마을위원회는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으며 지원이 가능한 외부단체 및 관련 정부 부처와도 협력했다.

한편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생활수준이 일정수준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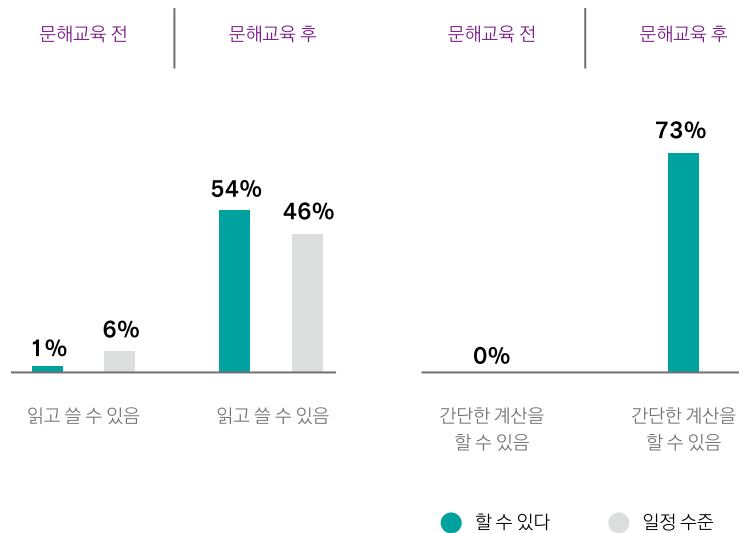
1.

문해기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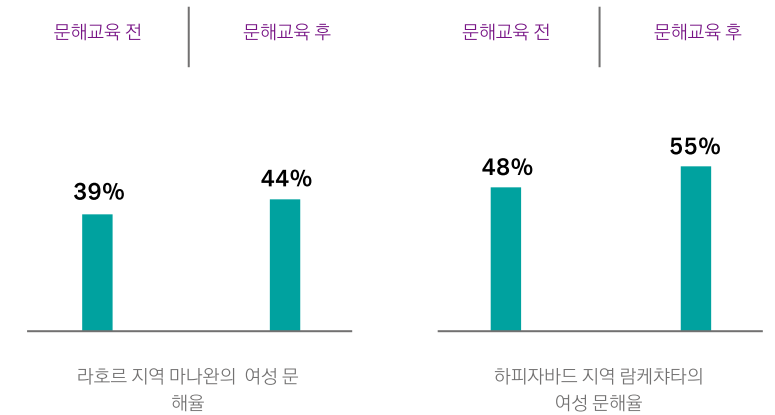
1.1. 기초문해력

총 589명의 여성들이 기초문해 과정을 이수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의 기초문해기능이 향상되었다. 전체 학습자 중 30%인 1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문해교육이 학습자들의 문해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기초문해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을 요약한 결과이다.

- 문해교육 실시 전, 1%의 표본 학습자들이 읽고 쓸 수 있었으며, 6%의 표본 여성들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쓸 수 있었다. (총 7%)
- 문해교육 실시 후, 54%의 표본 학습자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됐으며 46%의 표본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총 100%)
- 문해교육 실시 전, 0%의 표본 학습자들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 문해교육 실시 후, 73%의 표본 여성들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문해교육 실시 결과, 라호르 지역 마나완의 여성 문해율은 총 5% 증가했다.
 - 문해교육 실시 전, 라호르 지역 마나완의 여성 문해율은 39%이었다. (6,235명 중 2,431명)
 - 문해교육 실시 후, 라호르 지역 마나완의 여성 문해율은 44%가 되었다. (6,235명 중 2,727명)
- 문해교육 실시 결과, 하피자바드 지역 람케차타의 여성 문해율은 7%가 증가했다.
 - 문해교육 실시 전, 하피자바드 지역 람케차타의 여성 문해율은 48%이었다. (4,250명 중 2,040명)
 - 문해교육 실시 후, 하피자바드 지역 람케차타의 여성 문해율은 55%가 되었다. (4,250명 중 2,3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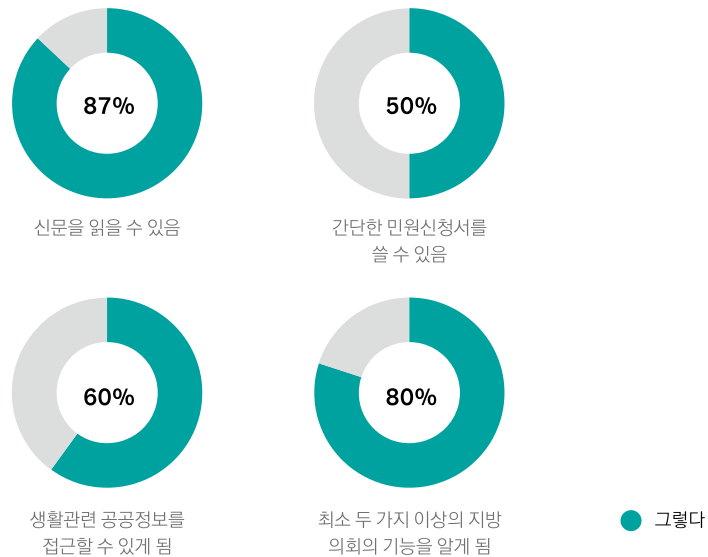


1.2. 기능문해력

여성 학습자들의 문해력을 심화하고 생활기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능문해교육을 실시했다.

다음의 결과는 전수 조사에 기반한다.

- 약 87%의 여성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약 50%의 여성이 공공기관에 간단한 민원신청서를 쓸 줄 알게 되었다.
- 약 60%의 여성이 보건, 영양, 지방 의회, 생계활동 등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약 80% 이상의 여성이 지방 의회의 기능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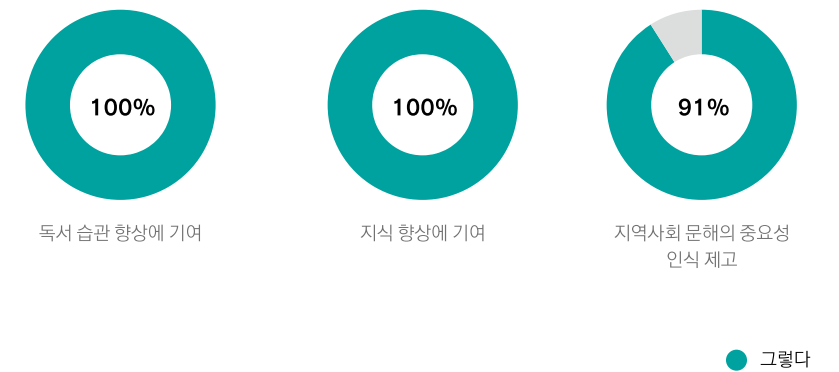
1.3. 문해후(Post Literacy) 활동 효과

문해교육 참가 여성들은 문해후활동인 릅샤 이동도서관 운영, ICT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글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문해력을 지속·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부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림샤 이동도서관 운영

림샤 이동도서관을 통해 여성들은 독서 습관을 길렀으며, 다양한 정보·지식을 얻었다. 문해교육 수료자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역 내 공립·사립 학교 학생들, 주민 등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했던 릅샤 이동도서관이 학습자들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1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00%의 표본선택된 교사는 이동도서관이 학습자들의 독서 습관 향상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 100%의 표본선택된 교사는 이동도서관이 학습자들의 지식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고 답했다.
- 91%의 표본선택된 교사(11명 중 10명)는 이동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문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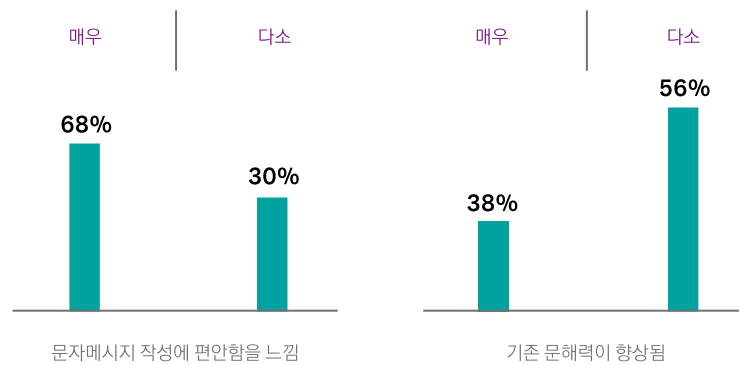


릭사 이동도서관은 문해교육을 단순히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여성들은 이동도서관을 통해 읽기 연습을 하고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배움이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활동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됐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습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에 익숙해졌으며 휴대폰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은 ICT 활용 프로그램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을 기초로 한 결과이다.

- 68%의 표본선택된 학습자에게 ICT 활용 프로그램이 기존에 배웠던 문해기능을 강화하고 향상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 30%의 표본선택된 학습자에게 ICT 활용 프로그램이 기존에 배웠던 문해기능을 강화하고 향상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다.
- 38%의 표본선택된 학습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에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 56%의 표본선택된 학습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에 다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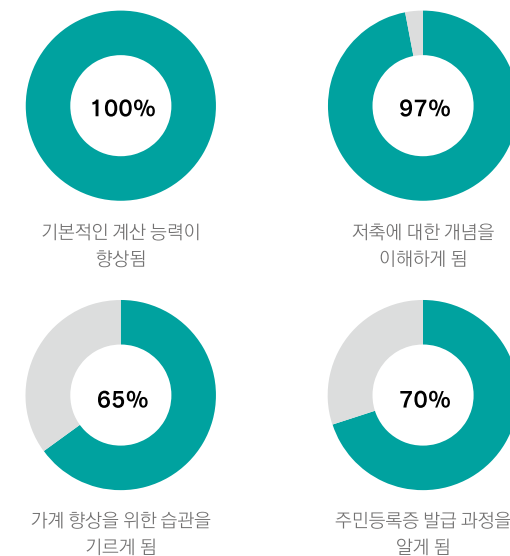
여성들의 소득증대

2.1. 조건부현금이전(CCT)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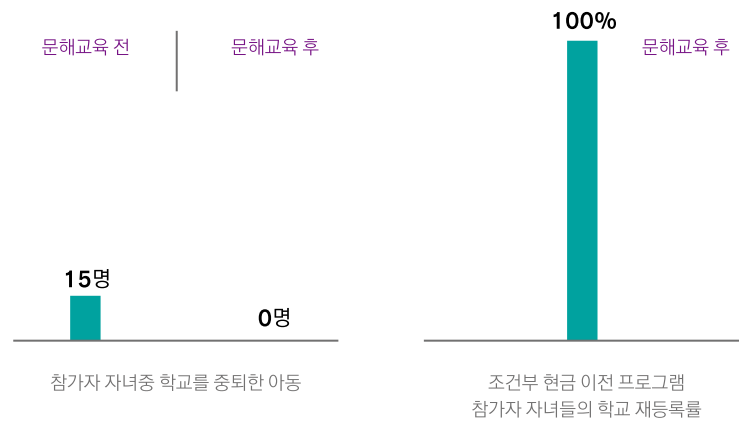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지원금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 생활에서의 권한이 강화됐다.

다음 결과는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참가자 응답을 기초로 한 결과이다. (단, '참가자'는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 전체 참가자 107명을 의미하며, '표본선택된 참가자'는 전체 참가자 중 설문에 참여한 54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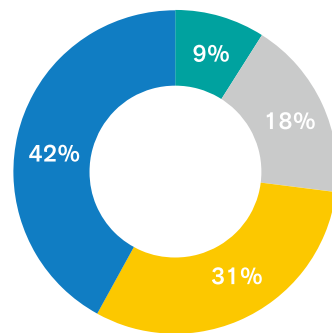
- 100%의 표본선택된 참가자의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향상되었다.
- 97%의 표본선택된 참가자가 저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 65%의 표본선택된 참가자가 가게 향상을 위한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 약 70%의 참가자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참가자 자녀의 100%가 학교에 재등록하여 수업을 이수했다.
(프로그램 실시전, 참가자 자녀중 15명이 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으나 프로그램 실시후, 15명 모두 학교에 등록했다.)



- 조건부현금이전 지원금 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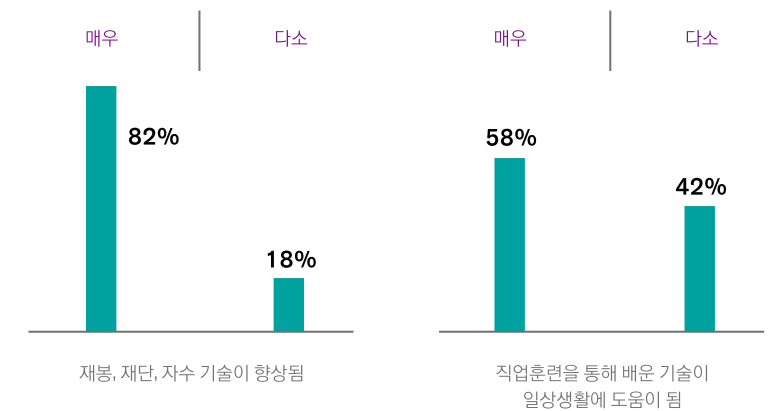
- 9%의 표본선택된 참가자들은 재봉틀을 구매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 18%의 표본선택된 참가자들은 형제,자매,자녀 교육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 31%의 표본선택된 참가자들은 가계 지출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 42%의 표본선택된 참가자들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참가자들은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초산술능력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봉틀을 구매하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등 지원금을 중요한 영역에 사용하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참가자들의 자녀와 가족의 교육, 보건, 영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역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소속감이 강화되었다.

2.2. 직업훈련 과정

사업 실시 전,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본적인 재봉(sewing) 기술은 가지고 있었으나 정교함이 요구되는 재단(cutting) 기술은 사용하지 못했다. 직업훈련 과정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심화된 재봉, 재단, 자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82%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재봉, 재단, 자수 기술이 매우 향상됐다고 답했다.
- 18%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재봉, 재단, 자수 기술이 다소 향상됐다고 답했다.
- 58%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이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42%의 표본선택된 여성이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이 일상생활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문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해강사 자밀라 씨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참가자 사례

문해강사 자밀라 씨 이야기, 36세

36세 자밀라 씨는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학습센터 문해교육 강사입니다.

강사로 활동하기 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던 자밀라 씨와 자녀들은 여성도 남성처럼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밀라 씨의 고정관념은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를 대신해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해강사 활동은 저에게 책임감, 의사결정능력,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고 있어요. 이젠 저 혼자 가게 지출 관리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요. 문해강사로 일한다는게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지요.”

자밀라 씨는 문해강사라는 본인의 직업을 무척 자랑스러워 합니다. 본인의 말대로 자밀라 씨는 문해수업에 오는 여성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밀라 씨의 열정 덕분에 그녀가 일하고 있는 지역 학습센터에서는 중간에 수업을 포기하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밀라 씨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밖 아이들이 마을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기도 한 여성 학습자들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설득하고 있

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에서는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녀의 상황을 알게된 자밀라 씨는 기초문해교육과 금융문해교육을 가르치는 한편 여성이 직접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파키스탄의 교육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는 거죠.”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 비문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자밀라 씨 마을에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고 문해교육을 실시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건강, 위생, 법률 같은 생활정보도 숙지하고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어 마을 주민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밀라 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문해후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밀라 씨는 앞으로도 지역학습센터에서 여성 학습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브릿지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될 때 문해교육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으로 희망을 잇습니다”

후원문의

전화번호 1800-997 ▪ 홈페이지 peace.unesco.or.kr

무통장입금 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은행 1005-986-001117 · 국민은행 375301-04-106542

문자후원 #25402 한 건에 3,000원 후원



마을 내 공터에서 문해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파키스탄 여성들

펴낸날 2016년 10월 28일
펴낸이 민동석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www.unesco.or.kr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아시아팀
전화 02.6958.4141
팩스 02.6958.4255
전자우편 bridge.asia@unesco.or.kr
편집 정용시, 민선영, 송이오, 엄지예
디자인 스튜디오 진지

한위간행물등록번호 YT / 2016 / RP / 3

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교육부의 국고보조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4